



대전, 8년만에 1부 승격시킨 이민성 감독과 재계약 완료 2015년 2부 강등...내년 1부 승격 예정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을 8년 만에 K리그 1부로 승격시킨 이민성 감독이 팀과 재계약했다. 대전은 13일 "이민성 감독의 재계약을 시작으로 2023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감독은 "대전 팬 여러분이 오랜 기간 응원했던 승격이라는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어 뜻깊은 한 해였다"며 "2023시즌에도 K리그에서 재미있는 경기와 승리를 통해 팬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2020년 12월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으로 부임했다. 이후 대전은 2021년 K리그 2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전남, 안양을 꺾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강원FC에 패해 2부에 머물렀다. 대전은 올해 K리그2 2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K리그1 11위팀인 김천상무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이겨 1부로 승격했다. 대전은 2015년 강등 이후 8년 만에 K리그1로 승격했다.

시즌 종료 후 약 한 달간 휴식한 대전은 지난 5일 덕양축구센터에서 첫 훈련을 시작했다. 대전은 3주간 국내 훈련 후 1월3일부터 태국 파타야로 동계 전지훈련을 떠난다.



프로농구 인삼공사 변준형, 2라운드 MVP...데뷔 두 번째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가드 변준형이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2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KBL은 13일 정규리그 2라운드 MVP 투표에서 변준형이 총 유효 투표수 78표 중 61표를 획득하며 자비 워니(SK)를 제치고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변준형은 2라운드에서 평균 30분44초를 뛰며 16.9점(전체 7위·국내 3위) 5.4어시스트(전체 2위)를 기록, 인삼공사의 상승세를 견주지 못했다. 지난 시즌 3라운드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라운드 MVP 수상이다. 인삼공사는 변준형의 활약에 힘입어 개막 전부터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변준형에게는 라운드 MVP 기념 트로피와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KLPGA 개막전 우승 박지영, 세계랭킹 59위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



한국 여자 프로골프(KLPGA) 투어 2023시즌 개막전에서 정상에 선 박지영(26)이 세계랭킹 59위로 뛰어올랐다. 13일(한국시간) 여자골프 세계랭킹이 발표됐다. 박지영은 지난주 72위에서 13계단 상승한 59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영은 지난 11일 막을 내린 KLPGA 투어 2023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시가포르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당초 이 대회는 3라운드로 열렸지만, 기상 악화로 3라운드 취소되면서 2라운드 대회로 끝났다. 2라운드에서 1위였던 박지영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게 됐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여전히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고, 벨리 코르다(미국), 아타이 티파코(태국), 이민지(호주), 고진영(27)이 2, 3, 4, 5위에 올랐다.

KIA 타이거즈, 리그 최강 선발진을 꿈꾼다

외국인 우완 투수 메디나·앤더슨 영입 완료 양현종·이의리·임기영 등 국내 선발투수 탄탄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투수 구성을 마무리하며 선발진의 윤곽이 드러났다. KIA는 11일 "외국인 우완투수 아도니스 메디나와 계약했다. 계약조건은 사이닝 보너스 3만 6천 달러, 연봉 3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 등 총액 63만 6천 달러"라고 발표했다. 메디나는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3시즌(2020-2022년) 19경기(35%이닝) 1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5.35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는 8시즌(2014-2022년) 동안 135경기(571%이닝) 36승 33패 2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3.83으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KIA는 "메디나는 시속 150km를 넘는 빠른 공과 결정구로 던지는 싱커가 위력적이라는 평가이며,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진다. 특히 빠른 구속에도 제구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메디나의 활약을 기대했다. 메이저리그 공식통계사이트 베이스볼레퍼토에 따르면 메디나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싱커 평균 구속 93.5마일(150.5km)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리그 평균에 가까운 구속이지만 KBO리그에서는 충분히 타자를 압도

할 수 있는 구속이다. 메디나가 영입하며 KIA는 외국인투수 구성을 마쳤다. 메디나에 앞서 우완투수 손 앤더슨을 100만 달러에 영입했다. 앤더슨 역시 메디나와 마찬가지로 150km가 넘는 강속구가 강점인 투수다. 지난해 포심 평균 구속 93.2마일(150.0km)을 기록했다. 앤더슨은 메이저리그 통산 4시즌(2019-2022년) 63경기(135%이닝) 3승 5패 3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5.84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6시즌(2016-2022년) 동안 113경기(416%이닝) 24승 17패 8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3.72로 견고한 성적을 남겼다. 주무기인 슬라이더는 2020년 피안타율이 1할8푼(37타수 4안타)에 그쳤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구종이다. KIA는 2022시즌 선발 평균자책점 6위(3.91)

에 머물렀다. 양현종, 이의리, 임기영 등 국내 선발투수들이 탄탄함에도 외국인투수들이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 못해 선발 로테이션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앤더슨과 메디나가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둔다면 KIA 선발진은 충분히 리그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잠재력이 보인다. 앤더슨과 메디나는 우완투수, 양현종과 이의리는 좌완투수, 임기영은 사이드암 투수로 좌우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2019년 1차지명 유망주 김기훈과 전체 2순위 신인 윤영철도 선발투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올해 리그 5위를 기록한 KIA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해 가을야구를 1경기밖에 즐기지 못했다. KIA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는 선발진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슬비기자

마스크 투혼 손흥민, 월드컵 영광 뒤로 하고 소속팀으로

선수 생명 걱정할 정도로 큰 부상 입은 상태에서 초인적 힘 투혼 발휘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하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30·토트넘)이 월드컵 16강 진출의 영광을 뒤로 하고 이제 소속팀으로 복귀한다.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 복귀를 위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떠났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장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2010 남아공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의 성과를 이뤘다. 선수 생명을 걱정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투혼을 발휘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초 소속팀의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도중 왼쪽 안과골절을 당했다. 눈 주변의 네 곳이 부러졌다. 그러나 월드컵 출전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일정을 앞당겨 수술대에 올랐고, 자신의 세 번째 월드컵에 뛰어 들었다. 부상의 붓기가 빠지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구단이 제작한 검정색 특수 보호 마스크를 쓰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시야 방해, 땀 처리 등 불편함을 감수했다. 비록 이번 대회에서 골은 없었지만 결정적

인 도움으로 16강 진출을 이끌었다. 포르투갈과 H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황희찬(울버햄튼)의 역전 결승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한 후반 추가시간 약 70m를 질주한 뒤, 포르투갈 수비수 3명 사이로 각각적인 패스를 선보여 황희찬의 골을 이끌어냈다. 이 골로 한국은 2-1로 승리해 우루과이, 가나를 따돌리고 조 2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었다. 지난 7일 선수단과 함께 금의환향한 손흥민은 8일 청와대 환영 만찬에 참석했고, 이후 짧지만 끝맛 같은 휴식과 부상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손흥민은 우선 재정비하고, 오는 26일 브렌트포드와의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를 준비한다. 수술 부위의 회복 상태와 치료에 대한 부분도 토트넘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23골로 EPL 역대 최초 아시아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3골 2도움으로 주춤했던 모습을 보였다. 잠잠했던 골 감각이 월드컵 16강의 기쁨을 터닝포인트로 살아날지 관심이 크다.

뉴시스

여자배구 창과 방패의 대결...흥국생명-도로공사 진검 승부

오는 18일 오후 7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리그 2·3위 대결...공격과 수비에 각각 강점



여자프로배구에서 막강 공격력을 자랑하는 흥국생명과 수비력으로 정평이 난 한국도로공사 사가 맞붙는다.



흥국생명과 도로공사는 13일 오후 7시부터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경기를 펼친다.

이번 경기는 리그 2위와 3위 간 맞대결이다. 흥국생명이 10승3패 승점 30점으로 2위, 도로공사가 7승5패 승점 21점으로 3위다.

뉴시스